



5일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충주시청에서 19개 지자체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심 민 임실군수를 차기 회장으로 만장일치로 합의, 추대했다.

“댐 소재지 경제활성화 최선”

전국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에 심민 임실군수 선출

전국 최초의 다목적댐인 섬진강댐의 주소제자인 임실군의 심 민 군수가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 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5일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충주시청에서 19개 지자체 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총회를 열고, 심 민 임실군수를 차기 회장으로 만장일치로 합의, 추대했다.

이로써 심 민 군수는 앞으로 2년간 협의회를 이끌어가며, 전국 댐소재지 지원사업 및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수 장 역할을 맡게 됐다.

전국 댐소재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댐 건설에 따른 인구와 소득감소 는 물론 일방적으로 수질보전을 위한 희생에 강요받고 있는 댐소재지 지자

체들간에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지 난 2011년 창립됐다.

협의회는 임실군 섬진강댐을 포함한 다목적댐 14개댐과 용수조절댐인 영 천댐 등 3개댐 홍수조절댐인 평화의 댐(강원화천)등 2개 댐을 포함한 19개 지자체로 구성돼 있다.

도내에는 부안군과 진안군 임실군 3 개군이 다목적댐 소재지 회원 지자체 로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는 그동안 전국 댐주변 지역개발 제약 등에 공 동 대응하는 한편 댐 지원사업의 효 율적인 활용과 댐 주변 지역 지자체 간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댐소 재지의 상생발전을 도모해 왔다.

그동안 정기총회에서는 댐 정비 사 업비 추가지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비 확대, 댐용수 사용료 전액 감면 및 댐 소재 지자체 광역상수도 요금 감 면 건의 등 중요안건을 다뤘었다.

이날도 심 민 군수의 회장선출 건 이외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기 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건의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지기도 했다.

회장으로 선출된 심 민 군수는 수락 인사에서 “댐 소재지 지자체 협의회 회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고 책임감이 앞선다”며 “댐 소재지 지역들은 댐 건설에 따른 지역적 낙후와 소외감이 적지 않은 데, 앞으로 협의회를 통한 지역간 상 호협력력을 더욱 강화해 댐주변 지역 경 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도록 노력하 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교통사고 다발우려지역에 입체교차로 설치

순창군 금과면민 숙원사업 해결... 국비 14억원 확보

순창 지역민의 오랜숙원사업이던 금 과 방축 입체교차로 설치사업비 28억 원이 지난 5일 기획재정부 예산에 최 종 반영됐다.

군에 따르면 금과 방축 입체교차로 총 사업비 28억 중 국비 14억원 부담 조건으로 국비 1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금과면민의 10년된 오 랜 숙원사업을 해결해 대형 교통사고 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게 됐다.

예산 반영은 그동안 순창군과 지역 주민, 국회의원, 도의원 등의 전 방위 적인 공조로 이뤄낸 성과라 그 의미 가 더 크다.

당초 금과 방축 입체교차로가 들어

설 국도 24호선(담양~순창간) 4차선 도로확장공사는 총 사업비 751억원을 들여 2009년에 착공, 올 연말 준공에 정이었다. 이 도로는 순창군 금과면 소재지와 강천산 군립공원을 연결하 는 주요도로로, 주민 통행량과 차량이동이 빈번한데도 불구하고 평면교차 로로 설계되어 있었다. 이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입체교차로를 원하는 지 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인 순창군 은 추가로 소요되는 28억 중 50%인 14억을 국비로 부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까지 입체교차로의 변경 설 치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황숙주 군수는 그동안 수차례 국회

와 기획재정부를 비롯 국토교통부, 예 결위원회와 정동영 의원, 이용호 의 원, 안호영 의원 등을 잇따라 만나면 서 광폭행정을 펼쳐 왔다.

이에 대해 이용호 국회의원과 최영 일 도의원에 합세하며 기획재정부에 최종 반영되도록 관계자들을 만나 힘 을 실어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또한 순창군과 금과면민들은 국토교통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진정서를 보내 며 건의했다.

황숙주 군수는 “금과 입체교차로 설 치사업이 최종 반영하게 된 데는 관 계공무원과 금과면민, 전세 순창군민,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도의원, 군의원 등 모두가 합심한 결과로 이뤄낸 성 과”라고 말했다. /순창=이왕원 기자

임실은 주야간 일조시간이 크고 일조시간이 타 지역보다 많으며 숙기의 온도가 높아 임실고추는 알싸하게 매우면서 달콤한 맛과 고운 빛깔을 띠고 있습니다. 세척부터 유통까지 임실고추종합기금센터의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시스템은 명품 임실고추를 생산합니다. www.imsilin.kr

매콤하고 달콤한 감칠맛

임실 고추

임실고추종합기금센터 세척건고추 고춧가루

“달래먹고 땀땀~” 달래 첫 출하

남원시 수지·송동면
고소득 작목 정착 기대

남원시 수지와 송동면에서 농사 를 짓고 있는 김종두씨가 새로운 신소득작목으로 단경기에 출하 할 수 있는 달래를 8월에 정식하고 11월 하순에 첫 수확을 시작으로 3월에 본격적으로 출하하여 고소 득(1만원/kg) 작목으로 정착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달래는 독특한 맛과 특유의 향 취를 지닌 향신채로 이른 봄 들녘 에서 가장 일찍 돌아와 우리의 봄 식탁을 꾸며 주는 나물로 예로부터 애용되어 왔으며 맛이 비스 한 파나 마늘이 산성식품인데 비 해 달래는 다량의 칼슘을 함유하 고 있어 알칼리성 식품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부위는 땅속의 비늘줄기와 잎으로 달래초 무침 등의 재료로 사용된다. 한방에서는 온증, 하기, 소곡, 살



총의 효능이 있어 여름철 토사관 란과 명치부터 배까지 더부룩하고 아픈 증상을 치료하고, 종기와 독 충에 물린 것을 가라 앉히며, 협 심통에 달래 약물에 식초를 넣고 끓여서 복용하면 좋다.

한편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수지·송동 농민상담소장 김흥수는 “수지와 송동에 간작으 로 소득작목 육성 및 작부체계의 변화로 농업인 소득을 향상 시킬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시 운봉에 내린 ‘새하얀 안개꽃’

국내 육성 품종 확대 재배
염색화·건조화 탁월

고랭지 화훼로 유명한 운봉 화훼단 지에 안개꽃이 내렸다.

운봉화훼 단지에 안개꽃과 스타티스 가 출하되어 농가의 시름과 고단을 잊게하는 바쁜 하루를 선사했다.

과거 30농가에 이를 정도로 성황이 었던 운봉화훼농가는 현재 절반수준 으로 줄었다.

금융위기와 신세대 소비패턴 변경에 소비자 지갑을 담은 이유이다. 거기 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화훼 소비 가 크게 위축되어 꽃집과 화훼 농가 의 매출이 급감했고 특히 선물용 화 분 등에는 피해가 커서 어려움이 악 순환 되고 있다.

올해 안개꽃 가격은 작년 이맘때보 다 크게 떨어져 농가의 시름을 더하 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는 남원 화훼 농업인들은 생존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

로열티를 감소하여 경영비를 감축시 킬 수 있는 국내육성 품종을 확대재 배하고, 최근 선호되는 염색화 건조화 에 탁월한 품종을 도입하여 시장을 선도하려 하고 있으며 신화종 도입으 로 틈새 시장을 노리는 등 소비자에 발맞춰 변화를 꾀하고 있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에서는 올해 국내육성품종 확대보급 시범사업(1.8ha)을 진행하였으며 연작 장애와 이상기온에 대응 할 수 있도 록 기술을 제공하는 한편 기술과 경 험을 공유는 현장교육을 통해 화훼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기 위 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 매아리

“다문화가정 공부방 꾸며드려요”
순창군, 10가정 지원대상자 선정

순창군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공부방 꾸미기’ 사업 을 펼친다.

순창군은 지난 11월, 순창군 다문화 가 정 중 총 10가정을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달 중에 ‘공부방 꾸미기 사 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부방 꾸미기 사업은 초등학생 이상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 대상으로 순 창군 다문화센터 한국어교육에 참여한 가정 중에서, 참여 실적 우수자에게 지 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대상자가 직접 각 가정의 형편에 맞게 도배, 장판, 책상 등을 구입 하고 자녀의 취향을 고려해 공부방을 꾸미게 된다.

이 사업에 지원을 받게 된 한 이주여 성은 “한국어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교 육이어서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했 는데, 자녀 공부방 꾸미기 사업에도 선정 되어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안겨준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황숙주 군수는 “앞으로도 다문화 가족 들이 순창에 정착하고 자녀들이 학습하 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배 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왕원 기자

임실 지사면 - 세종시 아름동
상생협력 자매결연 협약

임실군 지사면(주민자치위원장 최용 진)과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주민자치 위원장 강창)이 자매결연 협약을 맺었 다.

5일 지사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이 번 협약식은 양측 관계자 50여명이 참석 해 도농교류와 상생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을 약속했다.

자매결연을 계기로 도농간 지속적인 교류를 실시하고 농촌일손돕기, 농촌체 험활동 등 상호교류를 적극 추진기로 협의했다. 특히 지사면의 주요 특산품인 절임배추, 양파, 감자 등을 구입하기로 하는 등 농가 소득 증대도 기대된다.

강창 주민자치위원장은 “지사면과 아 름동 자매결연을 통해 상호 협력체계가 구축된 만큼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면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용진 주민자치위원장은 “세종 특별자치시를 대표하는 아름동과 자매 결연을 맺어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 라며 “양 기관이 가족과 같은 관심과 우 정으로 지속적인 상생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